언제해도 해야 할 공부 지금이 적기

☞ 19면에서 계속

겠습니까마는 글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왜 다를까요? 지금 금방 죽는다고 펄펄 뛰어도 고만이고, 살았다고 벌떡 일어나도 그만이니깐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눈 번쩍 뜨고선 여여하게 그냥 한길을 맞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때로는, 지장보살이 중생들을 다 벗어나게 한 난 뒤에 자기는 맨 나중에 들어가겠다고 문고리

전체 뛰어넘으면 여래

를 잡고선 기다리고 있으니깐 들어가는 사람들이 끝이 나지 않더랍니다. 끝이 날 때까지 그냥 문고리를 붙잡고 영원히 산다고 합디다 지금도.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몇 천 년 몇 만년이 됐다 하더라도, 몇 만 년 전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날짜가 따로 없고 해우년이 따로 없는 이런 도리를 알고 본다면, 그냥 현실세계 물질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러려니 하고, 좋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려니 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냥 한군데도 걸림이 없이 살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사람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야 모습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나투면서 이끌어 준다면, 길잡이가 되어 준다면 이 공장도 아마 없어질 수도 있겠죠. 모두가 불국토가 되니까 말입니다. 지수화풍으로 생긴 거는 항상 지수화풍을 먹지 않으면 못살고 지수화풍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수화풍 속에서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지수화풍을 먹고 살면서 연구를 하고 뭘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차원이 돼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고 살던 집을 떠나서 큰 집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속에서 알기 쉽게 그냥 하느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부처님이 대단하게 말씀해놓으신 뜻을 아주 대단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 자체가 지금 똑같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을 때 그것이 수 백 마디 해도 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수 백 마디 해도 새삼스럽게 닿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그냥 몇 마디 했는데도 다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꼬집어서 차례대로 끊간데 없이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기 이전에 모두 살아나가면서 극하게 욕심을 부리고, 극하게 집착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서 사람 사는 게 달라집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극히 그 욕심안내는 것만큼 다 갈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요새 IMF가 와서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죠.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고것뿐이겠습니까.

닥치는 일 놓고 가다보면 자유로워
자기가 알고 스스로 해야 진실한 법

새록새록 벌어지는 천차만별의 수많은 일들을 제각끔들 움켜쥐고 사시는데 그 움켜진 것을 그냥 놓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일 죽는다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거를 겁내지 않는다면, 죽는 거를 겁내지 않고 버린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까봐 겁을 내니까 겁내는 반면에 모든 게 틀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겁을 내지 않는다면, 겁내지 않고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한다면 뭐가 안되겠습니까. 겁내지 않고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여러 해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산을 하지 않았어도 입산을 한 것처럼 모두, 지금 스님네들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 땅에 앉아서도 마음을 태연하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도 건널 수 있고, 어떠한 마구니 틈바구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가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길은, 마음공부라고 이러는 이 길은 참, 그 길이 번듯한 대로(大路)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고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림을 하고 모두 살고 계신데 가정 살림을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등한시하면서 살아도 결국 언젠가는 또 해야되는 공부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닥친 거를 다른 누구한테 밀지 말고 꼭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길에 어지반 다 당도해서 갈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四聖諦)를 넘으라니까 무슨 그런 거를 넘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언짢아하죠? 그런데 쉬운 겁니다, 그게.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없을 때 이미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고는 바로 멸도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뛰어넘은 일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뛰어넘고 있을까. 어떠한 게 닥친다 해도 오만과 아만, 아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난 여러분한테 말을 예쁘고 미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그 말이 참 진실한 말입니다. 나만 진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정말 울어도 여러분과 같이 울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어제도 내일도 곧 오늘

그러나 이 모습으로는 여러분보다 제가 하루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뛰겠죠. 하하하… 그런데 저기 모셔놓은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은요, 먼저 간 것도 없고, 나중에 가는 것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 뜻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먼저 간 것도 없고 먼저 온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젊은것도 없고 모두가 평준하니까 공법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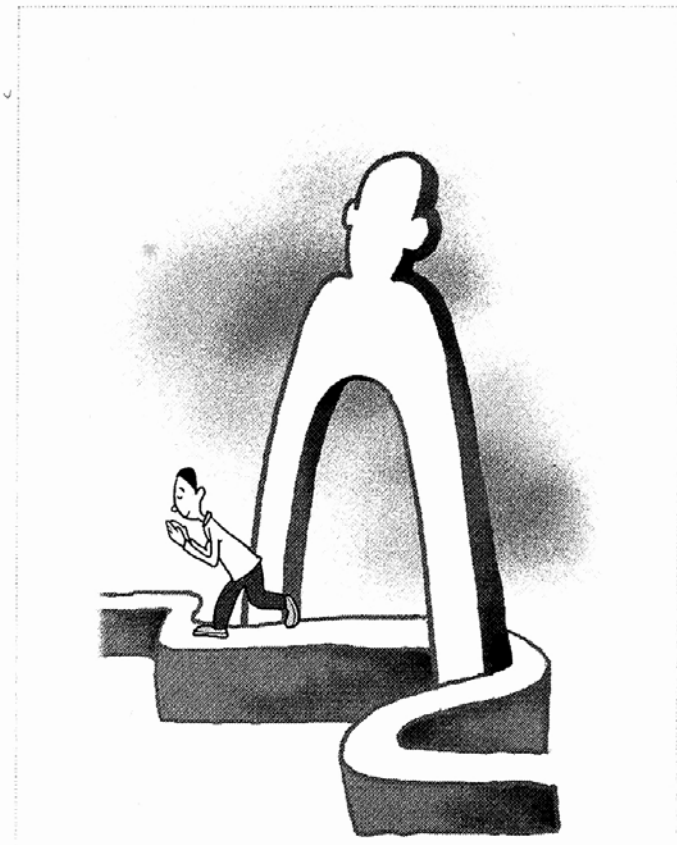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았지만 여러분한테, 여러분 차원에 내가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될 거고, 여러분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면 내 차원이 되는 거고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마음이야 어찌 똑같지 않겠습니까.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생명도 같고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귀다 아수라다 축생이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마음 탓입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못살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러지만 심부름꾼도 아니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깐 모두가 공생으로 사는 거죠, 공체로 사는 거구요. 외부나 내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실천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예요. 나를 발견해서 내가 진짜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시고 그걸 수긍해서 쥐고 나간다면 그게 반야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난 예전처럼 그렇게 말을 자주자주 할 수도 없는 거 같아요. 말이 이상하게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저 한 생각이 나면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놓으세요. 놓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묶인 걸 볼 때에 묶인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봐서 그냥 뛰어 넘으시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는 다 알아들으시겠죠?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가를 보신다면 바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뛰어넘지 않는다면 붙들어 매 가지고 그걸 집착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다면 어느 때에 벗어나겠습니까. 모두 나와 더불어 몽땅몽땅 놓는다면 더 더욱 좋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모두, 여러분이 살아나가는데 여러분이 고만 거기에 매달려서 애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냥 사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공장에서 인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구들 가는 거니까 그저 내 앞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놓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자유스런 때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공에 의해서 그냥 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런다면 그것이 스스로 녹아서 나중에는 해말갛게 다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면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된 걸 알게 되면은 그 아는 자기가 바로 자기한테 수기를 주게도 될 겁니다. 모든 게 서로 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수기

누가 수기를 주고 누가 수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화해서 말입니다. 내 자성 주인공이 화해서, 연등불로 화해서 나한테 수기를 주어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준 것이고, 내가 그 자리가 됐으니까 준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수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구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해야지 진짜 자기 걸로, 자기 법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알고 귀로만 들어서 안다면 자기 스스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법당을 짓는 데에 여러분과 스님네들이 모두 애를 썼지만 더불어 같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되고, 그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모두 그렇게 되시리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도 믿어야 하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믿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요 다음자리에 가서도 같이 할 수 있겠끔 해봅시다.
(대중박수)

※위 법문은 1999년 6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맑히는 책들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승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승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